

개회사

불기2560년 제1차 직할교구총회에 여러 주지스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불법을 흥포하고 가람을 수호하시는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씩없이 달려왔으며, 직할교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항상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하며 ‘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으로, 희망의 한 해’를 이루기 위해 소중한 노력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꿈과 희망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노동, 인권, 그리고 세대간·지역간의 양극화 등 사회전반에 만연해 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와 성실하게 소통하고, 불은(佛恩)에 보답하겠다는 서원속에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사부대중 모두가 숙원(宿願)하던 성역화 사업이 실질적인 진척을 갖게 될 것이며, 조계사를 중심으로 지혜롭고 조화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한층 다가가게 됩니다. 승려복지제도의 점진적 확대, 사찰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역시 모두의 진력으로써 가시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고 포교네트워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신행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화로운 포교의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종단의 주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할교구 사찰과 주지스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크다 할 것입니다.

직할교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지역사회의 불교 위상 및 포교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교구보다 더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주지스님들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소중한 성취는 직할교구뿐 아니라 종단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종단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항상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은사 소유였으나 부당하게 수용당한 토지가 한국전력을 거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들에게 정확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의 당당한 권리, 우리의 자존과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직할교구 역시 종단차원의 중요한 결의에 뜻을 함께해주시고, 앞으로 관련 사안에 깊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교구의 성취가 곧 종단의 기준이자 모범입니다. 종도이기에 가져야하는 종단관과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의미있는 실천을 위해 언제나처럼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사회와 이웃 모두의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2016)년 3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총회 의장 자 승